

쌓이는 부실채권...은행권 '팬데믹 특수' 끝났다

국내 5대 은행 연체율 2019년 수준으로 올라
건설업 연체 상승률도 높아...한계 기업 속출

고금리 장기화 속에 가계와 기업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부문별로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가계보다는 기업이,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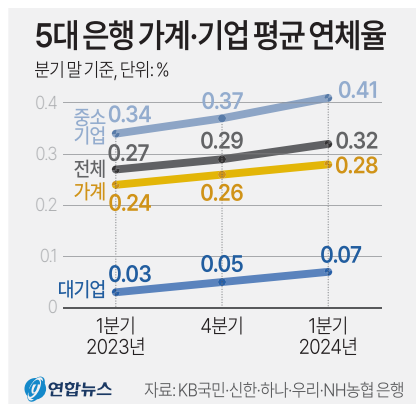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인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코로나19이전으로 돌아간 연체율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는 물론 전 분기(0.29%)보다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과 4분기 말에 각 0.24%, 0.26%에서 올해 1분기 말 0.28%로 상승했다. 지난 2월 말에는 0.32%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업 부문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각 0.34%, 0.37%, 0.41%로, 대기업은 각 0.03%, 0.05%, 0.07%로 연체율이 올랐다.

지난 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 0.55%

대기업은 0.13%, 기업 전체로는 0.47%의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선에선 이른바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른 연체율이 2019년 당시와 비슷해졌다"며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체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돌파
기업 부문에서는 건설업 연체율이 유독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지난해 동기(0.37%)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건설업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분기 말과 4분기 말 각 0.26%, 0.27%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다가 올해 1분기 말 0.41%로 올랐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말 0.46%에서 4분기 말과 올해 1분기 말 각 0.9%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전체 기업 연체율(0.28%)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일부 건설사 등의 워크아웃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털어도 털어도 쌓이는 부실채권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대거 상각 또는 매각하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중에만 1조6천79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8천536억원보다 88.4%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2년 1분기(4천180억원)와 비교하면 상·매각이 불과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차주들의 연체가 급속히 늘면서 은행들의 공격적인 상·매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28%로, 지난해 1분기 말의 0.27%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1천900조...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한국금융연구원, 취약 기업 상환능력 분석

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천900조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위기별·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천889조6천억원(은행권 1천350조5천억원, 비은행권 539조1천억원)으로, 팬데믹 기간(2019년 말~2023년 말) 분기 평균(전년 동기 대비 기준) 10.8%씩 불어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

기업 대출이 각각 54.3% (98조9천억원), 56.5% (564조원)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팬데믹 피해가 집중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175조7천억원)과 건설업(44조3천억원)의 대출 증가분이, 전체 업종 대출 증가(567조4천억원)의 38.8%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이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급상승했다.

팬데믹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도 정부 지원의 영향으로 각각 92조7천억원, 27조5천억원 늘었다.

신 선임연구원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최근 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총이자비용)이 1미만인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7.4%로, 외환위기 고점(67.8%) 보다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4.1%) 보다 높았다.

또한 차입금상환배율(총차입금/EBITDA)이 6배를 초과하는 취약기업의 경우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50.5%로 외환위기 고점(62.0%) 보다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53.3%)에 근접했다.

부채구조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기준으로 취약기업(200% 이상)의 차입금 비중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38.8%로 외환위기 고점(84.3%)보다 크게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6.4%)과 비슷했다.

기업 재무 단기 유동성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으로는 취약기업(100% 이하)의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51.9%로 집계됐다. 역시 외환위기 고점(58.2%)보다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47.7%)을 넘어섰다.

신 선임연구원은 “한은과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실 위험기업 비중과 부실 위험기업 차입금 비중이 모두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낮고 기업 부문 부실 규모도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로또복권 (제 111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3 4 9 30 33 36 /보너스 7		
1등	3,028,385,542	6개 숫자 일치
2등	48,325,30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37,071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더 그레이티스트 기프트 오브 올” 테마 행사
신세계가 지난 26일부터 5월 한달간 ‘더 그레이티스트 기프트 오브 올(The Greatest Gift of all)’ 테마 행사를 열고 백화점 내·외부와 쇼핑백, 포장지 등에 아이들이 직접 그린 디자인을 입혀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들이 더 그레이티스트 기프트 오브 올 행사를 소개하는 모습. <신세계백화점 제공>

정부, 성장률 전망 2%대 후반까지 상향조정 나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도 연간 ‘성장 눈높이’의 상향조정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0.6%)를 뛰어넘은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GDP가 분기별로 대략 0.5~0.6%씩 불어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연간 2.2% 성장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에 0.7~0.8%포인트 초과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예상경로를 고려하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

대 후반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외투자업계 시선도 다르지 않다. 지난 25~26일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됐다.

관건은 2분기 역(逆)성장 여부다. 1분기에 깜짝성장한 기저효과로 2분기 큰 폭의 성장을 조정하 불가피하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덤펀)</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보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기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